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주민의 인식분석과 정책에의 활용방안

-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을 사례로 -

손 상 략* · 이 성 용**

A Study on Urban Residents' Perception toward Open Spa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A Case Study of Masan · Changwon Metropolitan Area -

Sang-Rag Son* · Seong-Yong Lee**

요약 :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도시주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녹지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녹지에 대해 도시주민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시주민은 법·제도에 의거하여 지정·조성되는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 등과 같은 공식적인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주변 소공원·소규모 운동공원·동네야산·도시주변 산·약수터·학교캠퍼스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공원녹지도 중요한 공원녹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주민은 공원녹지가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기능보다는 환경보전과 심리적 효용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히 풍치를 관감하거나 친목도모·어린이교육 등의 사회적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운동·놀이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맑은 공기도 만끽하는 이른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거리에 조성되는 대규모의 화려한 공원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집 근처에 있으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원녹지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도시주민·공원녹지·공원녹지의식·공원녹지정책·마산·창원

ABSTRACT : A municipal government needs to develop urban policies based on the residents' needs for agreeable urban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s. This study offer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s and open space policies based on the survey of the residents' perception toward open space.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recognize informal open spaces, such as small park nearby, small sport park, hill, campus and school garden as well as formal open spaces, such as public park or urban park as important open spac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open space policies which have focused on formal open spaces under the urban planing law and the urban park law. Secondly, they recognize the roles of open spaces as

* 경남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논문주작성자인.

** 경남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전문연구원(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residents' emotion purification (psychologic utility)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Thirdly, they have used the open spaces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solation, such as liberation from sentiment, stress relief and breathing clean air rather than social purposes, such as sport, recreation, game, friendly relation, and child education. Finally, they prefer near community open spaces which are small and natural ones to remote huge ones with many artificial facilities. The possi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anaging open spaces is also identified.

Key Words : urban residents, open space, perception toward open space, open space policy, Masan, Changwon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은 고층·고밀·건폐지화되면서 도시내의 녹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각종 개발로 인해 도시내의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서식처로서의 녹지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쾌적한 환경과 자연환경 및 여가공간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욕구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측에서는 도시내의 공원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내의 녹지 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¹⁾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치중해왔고, 공원녹지는 비생산적인 토지이용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토지이용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후 나머지 토지에 설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공원녹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원녹지정책은 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부문별 계획으로 작성되는 공원·녹지계획에 근거하고, 여기서는 도시의 공원녹지를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만 파악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존재의미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즉, 공원녹지는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가·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공원녹지 배치가 이루어지고, 행정측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충족하는 데 급급하여 목표연도의 공원녹지 필요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공급자 중심의 공원녹지 정책). 이로 인해

1) Local Agenda 21의 후속작업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설정한 지방의제(녹색서울만들기·푸른대구만들기·녹색도시 부산21·Green 순천21·녹색도시 창원21 등)와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서울특별시, 1995),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서울특별시, 2000),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경기도, 1996), 도시정원화사업 기본계획(창원시, 2002), 푸른마산 조성 마스터플랜(마산시, 2002),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계획(창원천 시범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거제시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등) 등 환경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자치단체의 다양한 계획·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민들이 도시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녹지(도시속의 자연)로서의 공원녹지는 이용자(수요자)의 질적·양적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측에서 공공재로 공급한 공원녹지를 이용함으로써 효용을 얻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원녹지의 주인인 도시주민의 요구사항(공원녹지 의식)이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한 리우선언에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인인 주민(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도시(삶터)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주민의 가치관 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공원녹지에 대해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리우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

는 수요자(시민·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과연 공원녹지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시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원녹지에 관한 정책을 전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지로 마산과 창원시의 연담도시권을 선택하였다. 마산시와 창원시의 연담도시권은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도시로 존재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의 도시처럼 연담화되어 있으며, 양 도시의 주민들은 통근·통학·쇼핑 등 뿐만 아니라 도시시설에서도 도시 구분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 원(舊)마산과 신마산으로 형성되어 창원시(계획도시)에 연접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성향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52개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조성중이거나 미조성 상태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시간을 보낼만한 공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인구가동이 빈번한 곳으로서 많은 계획적인 공원(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하나의 도시처럼 연담화되

어 있으면서 도시경계에 상관없이 도시시설(예: 공원녹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하나로 생각하여 연담도시권 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해봄으로써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주민의 일반해에 가까운 의식(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시민)의 공원녹지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는 데 유익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마·창 연담도시권을 연구대상지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방법으로는, 먼저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도시처럼 연담화되어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는 연담도시권 주민은 공원녹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로 도시주민은 법·제도에 설정되어 있어 행정측이 공급한 공원녹지(공식적 공원녹지)만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공공에서 조성·공급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녹지(비공식적 공원녹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도시주민이 생각하는 공원녹지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공원녹지자원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해야 하고),

도시주민은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주민이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행정)측에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내용에 따라 공원녹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설문조사는 마산과 창원시의 동별 인구비례로 총 1,600부를 배부하여 1,453부를 회수하였으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여 분석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205부를 제외한 1,248부³⁾를 사용하였다(유효회수율 78.0%). 본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원녹지”는 법·제도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공원이나 녹지 및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하천·산림 등까지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나 녹화된 공간 전부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진 도시지역 내의 건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모든 토지와 물로 정의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공원녹지”라는 것은 법·제도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공원과 녹지를 말하고, 그 외의 공원녹지는 “비공식적 공원녹지”로 간주한다.⁴⁾

2) 1,600부의 방대한 설문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배부와 회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협조하에 통·반장을 통해 무작위로 각 가정에 배부하여 작성케 한 후 통·반장이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분석에 사용한 유효설문지는 1,248부이나 문항에 따라서는 답변하지 않은 설문도 있어서 응답자수가 항상 같지는 않다.

4) 김귀곤(1994: 1)과 김수봉·김용수(1992: 2)에서도 광의로 공원녹지를 정의하고 있고, 舊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상의 공원녹지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계획권·광역권),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있다(공식적 공원녹지). 이러한 공원녹지를 제외한 도시내의 녹지를 비공식적 공원녹지로 간주한다.

II. 기존 연구와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상에 나타나 있는 공원과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녹지는 오늘날 도시공간에 있어서 자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난 후 남겨진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가 지정되는 경향이 있고, 녹지지역의 경우도 도시적 토지이용이 아닌 남은 지역은 일단 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오구균·이규완, 1995: 8). 기존 공원녹지정책은 법·제도상의 규정에서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적인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였을 뿐,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의 확보·관리에는 소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은 공식적으로 확보·조성된 공원녹지 외의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수봉, 1997).

법·제도에 따라 공공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급된 공원녹지이든 도시민의 일상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자연녹지이든 도시공간 속에서의 공원녹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원녹지의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Beer(1990)는 공원녹지란 도시내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경관에 반대되는 개념인 자연환경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는 도시의 가능한 모든 곳에 자연을 도입·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양운제(1982), 홍광표(1985)의 오픈스페이스는 자연적 요소를 도시내에 창출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전되거나 개발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임승빈(1998)은 공원녹지의 기능으로서 여가공간 제공·경제활성화 촉진·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사회적 교류 증대·도시경관 향상·피난처 및 경작지 제공을, 김승환(2000)은 도시쾌적성 향상·도시방재·도시환경 조절·도시개발 조절을 각각 들고 있다. 박대홍(1993)은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확산을 막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시의 대기오염이 심해질수록 탄산가스량은 늘어나고 산소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기오염 방지 측면에서 조성된 공원녹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대기정화 측면에서 공원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경재(1990)도 현대에 들어와 도시인구가 급증하자 공원녹지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원녹지의 기능 중 환경오염 정화 및 삼림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원녹지의 기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데(김용수, 1997: 606), 이러한 맥락의 조사연구로서 엄봉훈(1986, 1988)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기능을 정적 레크레이션 이용·동적 레크레이션 이용·심리적 효용·환경보전으로 설정하여 공원녹지기능의 중요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1986년 조사에서 정적 레크레이션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심리적 효용·환경보

전·동적 레크레이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988년 조사에서는 정적 레크레이션 기능이 낮아지는 대신 심리적 효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전과 동적 레크레이션 기능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졌다는 대구시민들의 공원녹지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공간의 질이라는 것이 미적 기준이나 기능성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다면 현대는 생태적 혹은 친환경적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고(양병이, 1997), 도시공원의 기능 중에서 생태적 기능은 과거에 미약했던 기능이었으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00: 85). 한편 日本公園綠地協會(1998)는, 공원녹지는 전통적으로 존재효과(도시형태 규제효과·환경위생적 효과·재해방지효과·심리적 효과·경제적 효과)와 이용효과(육체적 건강·정신적 건강·레크레이션·교양·문화·향토의식 함양·사회성 증진·커뮤니티활동의 장)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오늘날에는 자연생태기능(동식물 서식공간)·도시환경기능(도시미기후 조절)·방재기능·자연학습·만남의 장·도시경관 형성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기간적 시설이라고 하고 있다.

도시민의 공원녹지 이용목적과 관련해 김수봉(1999)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이유로 기분전환·운동이나 놀이·친구와의 만남·어린이놀이·자연접촉의 5개 선택지를 설정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놀이나 운동을 위해·친구를 만나기 위해 공원녹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0)에서는 공원이용 목적을 만남·행사(모임 포함)·관람·운동·경치감상·어린이놀이·휴식(산책 포함) 등 8개 항목을 설정하여 질문한 결과, 휴식(산책 포함)을 위한 이용이 가장 많고, 만남과 대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공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의식조사(서울특별시, 1995)와도 유사한 결과다. 또한 손상락·윤병구(2002)는 도시민은 공원녹지 이용목적으로 심리적 효용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용목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III. 마·창 연담도시권 주민의 공원녹지 의식과 정책방향

1. 공원녹지 이미지와 만족도

마·창 연담도시권은 중도시 규모로 이루어져 시가지의 가까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원녹지가 다른 어느 도시권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연담도시권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우 많음+많음:51.5%), 공원녹지에 대해 유보적인 응답(보통)을 한 사람(263명) 중 약 36.5%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 참조).

〈표 1〉 마·창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량 인식

구 분	빈 도(%)
매우 많음	210(16.8)
많 음	433(34.7)
보 통	263(21.1)
적 음	256(20.5)
매우 적음	40(3.2)
잘 모르겠음	46(3.7)
합 계	1,248(100)

〈표 2〉 마·창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 만족도

구 분	빈 도(%)
만 족	36(13.7)
비교적 만족	121(46.0)
보 통	62(23.6)
약간 불만	28(10.6)
불 만	6(2.3)
잘 모르겠음	10(3.8)
합 계	263(100)

위와 같은 공원녹지량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연담도시권에 공원녹지가 많다는 응답자(643명) 중에서 어떠한 공원녹지가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표 3〉 참조), 공원

의 잔디·나무·꽃(18.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도시내 작은 야산의 나무 등(15.6%)·동네주위의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의 화단·잔디·나무 등(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다(적음+매우 적음)고 생각하는 응답자(296명) 중 어떤 공원녹지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동네 주위의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화단·잔디·나무 등(23.0%)이 가장 부족하고, 다음으로 공원의 잔디·나무·꽃 등(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집 근처의 짜투리땅을 활용한 동네소공원·쌈지공원과 같은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공원녹지를 한층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시(근린)공원에 보다 많이 식재를 하고 계절별로 꽃을 심고, 단순히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의 고유기능에 치중했던 도시 내의 도로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 등의 적극적인 공원녹지 확충으로 도시공원이나 도로공간에 자연적인 풍요로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공원녹지 종류별 양에 대한 인식

구 분	어떤 녹지가 많은가? 빈도(%)	어떤 녹지가 적은가? 빈도(%)
공원의 잔디·나무·꽃	348(18.2)	270(15.7)
도시 내 작은 야산의 나무 등	298(15.6)	94(5.5)
동네주위의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화단·잔디·나무 등	268(14.0)	397(23.0)
도로변의 가로수·꽃·잔디	256(13.4)	232(13.5)
아파트단지 내의 잔디·나무·꽃	252(13.2)	98(5.7)
조그만 언덕·경사면의 잡초·수목·잡목림	152(8.0)	104(6.0)
개인주택의 꽃·풀·잔디·정원수	142(7.4)	180(10.4)
공공건물·공장 내의 잔디·나무	136(7.1)	193(11.2)
하천변 식물	58(3.0)	155(9.0)

즉, 도시공간속의 도시공원은 잔디와 다소의 나무만 있거나,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도시공간속의 오픈스페이스로서 자연적인 요소가 풍부하여 도시속의 자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녹지정책을 도시주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⁵⁾

한편,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표 4>), 공원마다 특색이 있거나 다양한 공원시설이 있다는 의견(16.5%)보다 공원다운 공원이 없고 특색·볼거리·시설이 부족(부재)하다는 의견(83.5%)이 압도적으로 높아 마산·창원의 연담도시권에는 공원녹지는 풍부하나 공원마다 특색이 없고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은 공원을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되고, 한번 공원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특색이 있는 공원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시생활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자연을 느끼고 싶어 가족·동료들끼리 공원에 가더라도 사람들로 복잡하여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주민의 여가욕구 충족과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다운 공원의 신규 조성 내지는 공원마다 주제와 특색을 부여해 보고 느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존 공원의 재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마·창 연담도시권의 공원 이미지

구 분	빈 도(%)
공원마다 특색 부재	366(29.3)
공원다운 공원 부재	359(28.8)
공원시설 부족	191(15.3)
공원마다 특색 있음	158(12.7)
공원에 볼거리 부재	126(10.1)
다양한 시설 있음	48(3.8)
합 계	1,248(100)

2. 공원녹지 개념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마산·창원의 연담도시권 주민(도시주민)은 법·제도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공식적 공원녹지”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행정축이 계획적으로 지정·공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비 공식적 공원녹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즉, 도시주민은 평소 어떤 종류의 공원녹지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에 따라 위계성에 의한 공원녹지정책이 도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이를 위해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에 산재하는 25종류의 공원녹지자원을 제시하고 3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25종류의 공원녹지에 대해 모두 두번 이상 관심을 나타내어, 현행 법·제도상의 공식적인 공원녹지 이외의 비공식적인 공원녹지도 도시민에게는 중요한 비중

5) 창원시에서는 2002년에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할 뿐만 아니라, 꽃과 조경을 실시하여 도로공간을 정원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창원시, 2002).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舊도시 계획법(現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이외의 거주지 주변 소공원·소규모 운동공원·동네야산·도시주변 산·약수터 등의 비공식적인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전체 응답자 중 약 65%가 비공식적 공원녹지도 도시내의 중요한 공원녹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상의 위계성을 공원녹지 공급의 황금법칙으로 간주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결과다. 다시 말하면, 도시민들은 법제상의 면적·이용권 혹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괴리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공급되는 화려한 공원녹지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소박하지만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 조성되어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녹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원녹지(공공재)를 도시민에게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 행정측은 상기와 같은 지역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인 틀에 의해 공급되는 공식적인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녹지에도 도시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5〉 공원녹지자원을 통한 공원녹지 개념에 대한 인식(3개 선택)

구 분	빈 도(%)
도시(근린)공원*	362(12.6)
도시자연공원*	351(12.2)
거주지 주변 소공원	320(11.1)
소규모 운동공원	304(10.6)
동네야산	197(6.8)
도시주변 산	188(6.5)
약수터	171(5.9)
유원지*	161(5.6)
어린이공원*	131(4.6)
학교캠퍼스	129(4.5)
가로수	115(4.0)
주택정원	110(3.8)
건물주위 조경공간	97(3.4)
연못(소규모 저수지)	92(3.2)
시가지내 하천변 녹지	81(2.8)
가로공원	79(2.7)
주말농장(텃밭)	78(2.7)
동네빈터	71(2.5)
아파트단지 조경	69(2.3)
사찰	40(1.4)
중앙분리대	20(0.7)
옥상정원	15(0.5)
묘지공원*	9(0.3)
골프연습장	8(0.3)
골프장	2(0.1)
합 계	2,878(100)

주 : *는 법·제도에 의한 공식적 공원녹지임.

3. 공원녹지 기능에 대한 인식

고층·고밀·건폐지화되고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공간에서의 공원녹지 기능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과연 공원녹지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공원녹지 기능을 크게 정적 레크레이션기능(휴

식·관상 등)·동적 레크레이션기능(운동·유흥 등)·심리적 효용기능(인간의 정서순화 효과 등)·환경보전기능(온도조절·공기정화 등)의 4가지 기능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였다(〈표 6〉참조). 그 결과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의 주민들은 도시공간에 있는 공원녹지는 인간의 정서순화 등 심리적 효용(35.7%)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환경보전기능(35.5%)·정적 레크레이션기능(21.7%)·동적 레크레이션기능(7.1%)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보다는 개발·성장 위주의 마인드가 지배적이었던 80년대말에 수행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엄봉훈, 1988)보다 환경보전기능이 한층 더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녹지의 기능을 보는 도시주민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이 종래의 장식·관상적인 정적 이용 개념에서 점차 탈피하여 심리적 효용이나 환경보전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원녹지의 환경보전기능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연구결과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의 리우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공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질 높은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원녹지는 환

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효용성을 되찾고 있고, 생태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황기원, 1998: 429)는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6〉 공원녹지 기능에 대한 의식

구 분	빈 도(%)
심리적 효용 (인간의 정서순화 효과 등)	446(35.7)
환경보전기능 (온도조절·공기정화 등)	443(35.5)
정적 레크레이션기능 (휴식·관상 등)	271(21.7)
동적 레크레이션기능 (운동·유흥 등)	88(7.1)
합 계	1,248(100)

따라서, 공원녹지의 계획과 정책에서 지금까지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등의 기능위주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순화와 환경보전기능을 한층 더 중요시하여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법·제도에 의한 공원녹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물론이거니와 앞에서 공원녹지 개념부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도시속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비공식 오픈스페이스의 생태·환경보전효과에 눈을 돌려야 한다(이창우, 1999: 219)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4.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의식

도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녹지

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용자(수요자·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녹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시내에 존재하는 공원녹지가 도시주민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므로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목적을 6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였다(〈표 7〉 참조).

〈표 7〉 공원녹지 이용목적에 대한 의식

구 분	빈 도(%)
해방감 위해(휴식·산책 포함)	511(42.3)
맑은 공기 만끽	230(19.0)
운동·놀이	184(15.2)
자연풍치 즐김	136(11.3)
친목 도모	76(6.3)
어린이교육	71(5.9)
합 계	1,208(100)

전체적으로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의 주민들은 공원녹지를 이용함으로써 각박하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도시생활로부터 벗어나 휴식·산책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42.3%)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맑은 공기 만끽(19.0%)·운동놀이(15.2%)·자연풍치 즐김(11.3%)·친목도모(6.3%)·어린이교육(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내의 잿빛 건축물 환경속에서 각박하고 반복되는 도시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해방감) 도시속의 자연적 요소로서의 공원녹지를 찾아 맑은 공기와 자연풍치를 즐기고자 하는 심리적 위안의 목적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72.6%)이 운동·놀이나 친목도모·어린이교육 등과 같

은 사회적 목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인공환경이 지배적인 현대의 도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잠시나마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해방감) 자연을 만끽하고(맑은 공기·자연풍치 즐김) 운동·놀이도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공원녹지 이용목적 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공원녹지는 여러가지 인공적인 시설을 잔뜩 설치해야만 제 노릇을 하고 인정받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황기원, 2001: 3). 이용자의 심리적 효용을 제고하고 존재가치로서의 환경보전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공원녹지기능) 맑은 공기와 자연풍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성이 풍부한 이른바 공원녹지는 도시공간속에 전시된 “자연의 진열창”이라는 종래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원녹지는 “도시속의 자연”이라는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황기원, 1998: 430).

5.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의식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에서 신규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원녹지의 배치·규모 등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공원을 신규 조성하거나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

는 공원녹지 유형으로는 동네빈터·쌈지공원 등과 같이 거주지 근처에 조성되어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한 소규모 공원이 더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42.0%), 기존 시가지에 조성된 공원에 인공적인 시설물을 많이 도입한 공원녹지 유형(14.8%)보다 시가지내에 있는 야산을 활용하여 자연적 요소가 많은 공원(19.8%)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8〉 공원녹지의 배치·규모에 관한 의식

구 분	빈도(%)
거주지 주변에 조성되어 접근하기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한 소규모 공원(근거리·소규모)	524(42.0)
시가지내 야산을 활용한 자연적 요소가 풍부한 공원(근거리·자연성·정적)	247(19.8)
도심에 조성된 공간에 어린이놀이터·휴게시설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도입된 공원(근거리·다양성)	185(14.8)
체육공원·레포츠공원과 같이 운동·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원(근거리·동적)	176(14.1)
시 외곽지의 대규모 공원이나 유원지 형태의 공원(원거리·대규모)	116(9.3)
합 계	1,248(100)

즉, 대규모의 원거리에 있는 공원녹지보다는 집 가까이에 조성되어 있어 짜투리시간을 이용하여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그리고 인공적인 요소가 많은 공원보다 자연적인 요소가 풍부한 공원녹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법·제도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계성을 준수하면서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조성되는 공원에는 많은 인공적인 공원시설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해왔던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야산을 활용한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 조성이 2순위로서 약 20%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못해 시가지내 야산을 공원으로 지정해두기만 하고 장기간에 걸쳐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시민이 가장 빈번히 접하고 적극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원녹지인 공원에 대한 관리방향(〈표 9〉 참조)으로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나무를 더 심어 자연성을 높이고(37.9%) 꽃밭을 만들어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25.2%) 다양한 시설물을 도입·설치하는(21.0%) 한편, 잔디를 더 잘 관리할 것(13.5%)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일정수준의 구성비를 나타내어 식재·잔디관리·시설도입·다양한 분위기 창출의 각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9〉 공원녹지의 관리방향에 대한 의식

구 분	빈도(%)
나무를 더 심어 자연성을 높임	428(37.9)
꽃밭을 만들어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함	285(25.2)
다양한 시설을 도입·설치함	238(21.0)
잔디를 더 잘 관리함	152(13.5)
기타	27(2.4)
합 계	1,248(100)

그리고 신규로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녹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녹화기금 설치에 대해 응답자(1,232명) 중에서 49.3%는 찬성, 23.4%는 반대, 유보적인 응답(잘 모르겠다)이 27.3%로 나타나 찬성과 반대(반대+유보적인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그리고 찬성을 응답한 사람(607명)에게 녹화기금을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표 10〉 참조), 시 재정으로부터 예산배정이 45.3%, 공원녹지세(가칭) 신설·공원녹지 기부금제 도입이 각각 29.8%와 24.9%를 나타내어 녹화기금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중에서도 많은 사람들(70.2%)이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함으로써 도시공간내의 녹지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 그러한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삶을 영위함으로써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공원녹지의 이용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주민 전체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녹화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차원에

서 공원녹지와 관련한 자원봉사를 추진한다면 전체 응답자(1,219명) 중에서 41.6%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부문(〈표 11〉 참조)으로는 공원 화단가꾸기·꽃심기가 가장 높고(23.7%), 다음이 공원순찰·나무이름표 달기·공원청소·어떠한 것이든 하고 싶다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10〉 녹화기금 형태에 대한 의식

구 분	빈도(%)
예산배정: 기존의 시 재정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적립금 마련	275(45.3)
공원녹지세 신설: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주민세와 같은 형태로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의 일정액 부과	181(29.8)
기부금제 도입: 뜻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자유로운 기부금 형태로 조성	151(24.9)
합 계	607(100)

〈표 11〉 선호하는 자원봉사 부문

구 분	빈 도(%)
공원 화단가꾸기·꽃심기	98(23.7)
공원순찰	92(22.2)
나무이름표 달기	68(16.4)
공원청소	62(15.0)
어떤 일이든 상관없음	61(14.7)
나무 물주기	18(4.4)
공원 잡목림 관리	15(3.6)
합 계	414(100)

그리고 행정측에서 지역내에 있는 많은 공원녹지의 관리를 위해 나무 한그루 관리운동을 한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74.3%에 달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관리의 가능

성을 엿볼 수 있다.⁶⁾

IV. 종합 및 결론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여가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도시공간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전개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공원녹지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공공에서 공급하고 도시주민은 이용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정책은 이용자의 욕구·의식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시민)의 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 이미지·공원녹지 개념·공원녹지기능·공원녹지 이용목적 그리고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에 대해 지역주민은 과연 어떠한 생각(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공원녹지와 관련한 계획과 정책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마산·창원 연담도시권의 공원녹지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은 공원녹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공원의 잔디·나무·꽃과 같은 공원녹지,

적다는 응답자는 동네주위의 소공원·어린이 놀이터의 화단·잔디·나무와 공원의 잔디·나무·꽃 등의 공원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도시공원은 많으나 특색(주제)이 없고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며, 시설·불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색과 불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집에서 가까운 곳의 짜투리땅을 이용한 동네소공원·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집근처에서 푸르름(자연)을 접하고 싶어하며, 기존 도시공원에 식재와 계절별 꽃을 심어 자연성·다양성을 제고하여 공원간의 차별화로 공원이용의 증대와 분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주민들은 행정측에서 법·제도에 의거하여 계획적으로 조성·공급하는 도시자연공원·도시(근린)공원과 같은 공식적인 공원녹지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주변 소공원·소규모 운동공원·도시주변 산·동네야산·약수터와 같은 비공식적인 공원녹지도 선호하거나 공원녹지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제도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공원녹지 공급에 치중해왔던 공원녹지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원녹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제도에 의거한 공식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6) 나무 한그루 관리운동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금 있음(55.6%)·적극적으로 동참(18.7%)·없음(14.2%)·잘 모름(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공원녹지(비공식적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고층·고밀·건폐지화되어 지속불가능한 도시공간으로 변모한 오늘날에 있어서 공원녹지는 어떠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주민의 정서순화(심리적 효용)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의 보전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기능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결과(엄봉훈, 1986; 엄봉훈, 1988)보다 한층 더 높게 나타나, 이는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있어서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공원녹지기능으로서의 도시주민의 여가공간 확보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룩하기 위한 차원에도 한층 더 관심을 갖고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마산·창원 연담도시권 주민(도시주민)은 공원녹지를 운동·놀이·친목도모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각박한 도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면서 맑은 공기와 자연풍치를 즐기기 위해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녹지기능에 대한 가치관과 일치하는 이용이며, 공원녹지는 단순히 인공적인 시설이

많이 도입되고 도시민의 정적·동적 레크레이션 장만이 아니라 환경적 기능과 아울러 인간의 심리적·정서적 위안을 주는 “도시속의 자연”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가 공급·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창 연담도시권 주민들은 대규모의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소박하고 소규모일지라도 거주지 주변에, 그리고 인공적인 시설이 많은 것보다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녹지를 한층 더 원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녹화기금과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과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관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원녹지의식은 공원녹지자원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의 연구에서는 공원녹지자원·도시특성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도시주민의 공원녹지의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을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거제시, 2001, 『거제시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경기개발연구원, 2000, 『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1996,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 김귀곤, 1994, 『도시공원녹지의 계획·설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수봉, 1997, “진해시 환경녹지 계획정책에 관한 연구”,

- 『환경정책』, 5(1): 155~168.
- 김수봉, 1999, “대구시 환경녹지 계획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7(3): 99~111.
- 김수봉·김용수, 1992, “대도시 공원녹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19(4): 1~11.
- 김승환, 2000, “도시공원과 녹지체계”. 임정덕·황영우편, 『부산도시론』, 부산발전연구원, 151~172.
- 김용수, 1997, “대구시 녹지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시정연구』, 17: 606~640
- 마산시, 2002, 『푸른 마산 조성 마스터플랜』.
- 박대홍, 1993, “생활과 기후”, 영남일보.
- 서울특별시, 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 손상락·윤병구, 2002, “도시민의 공원녹지 가치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3: 55~71.
- 양병이, 1997, “지속가능성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2): 89~106
- 양윤제, 1982, “도시환경과 녹지”, 『한국조경학회지』, 10(1): 27~29.
- 엄봉훈, 1986, “대구시 공원녹지의 만족도 평가 및 녹지의식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논문집』, 6: 61~85.
- 엄봉훈, 1988, “대구시민의 녹지의식 및 공원녹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새마을연구논문집』, 8: 71~86.
- 오구균·이규완, 1995,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현황과 개선대책”, 광주광역시, 『시정연구』, 13: 5~29.
- 이경재, 1990, “서울시 녹지현황과 구조적 특성”, 『도시문제』, 261: 17~24.
- 이창우, 1999,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한울, 205~226.
- 임승빈, 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 창원시, 1999, 『창원천 시범하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창원시, 2002, 『창원시 도시정원화사업 기본계획』.
- 홍광표, 1985, “오픈스페이스체계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3(1): 100~114.
- 황기원, 1998, “공원녹지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423~452.
- 황기원, 2001, “공원의 미래를 잘 쓰기 위해서”, 『도시정보』, 227: 2~3.
- 芮京祿, 1996, 『居住環境における自然體驗と環境意識に關する研究』, 日本千葉大學博士論文.
- 宇都宮深志, 1995, “都市の綠化行政と住民參加”, 『都市問題研究』, 46(4): 31~53.
- 李榮大·淺川昭一郎·朴贊龍, 1989, “韓國テグ市と札幌市における住民の綠地意識比較”, 『造園雜誌』, 52(4): 255~262
- 日本公園綠地協會, 1997, 『綠の基本計劃ハンドブック』.
- 日本公園綠地協會, 1998, 『公園綠地マニュアル』, テグ
- 長山宗美·吉田博宣·糸谷正俊, 1992, “京都市民の綠の満足度に関する研究”, 『造園雜誌』, 55(5): 337~342.
- 辰巳修三·友井和俊·平田研一·淺野二郎, 1973, “都市オープンスペースの形態に関する研究(I)”, 『造園』, 36(4): 3~9.
- Beer, A. R, 1990, *Environmental Planning for Site Development*, E&FN Spon.

원 고 접 수 일 : 2005년 8월 29일
1차심사완료일 : 2005년 9월 26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5년 10월 6일